

옛날에 비해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담배에 대한 사고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생각했던 것 보다 사고가 바뀌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스스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담배를 피우면 자신의 욕구만족은 충족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연기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를 주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연장소와 공공장소에서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자의 흡연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저는 그다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지금 여자의 흡연에 대해 과거에 비해 이외의 관점에서 볼수있습니다.

아마 담배에 남녀차별을 하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피우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나 중·고생의 흡연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담배상자 앞에 광고를 문구를 보면 어린이도 임신부와 건강을 해칠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라 써 있는것은 담배가 좋은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담배는 100해무익하기에 피우지 않는 것이 1000번이고 좋다고 전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나의 생각이지만 담배는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수 없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요약하면 피우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피우든 피우지 않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으로 건강은 소중하므로 건강할때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